CJ제일제당, 중국에 사료공장 건설

산둥의 랴오청의 15만톤 설비 2012년 완공 … 총 17개 생산기지 운용

CJ제일제당은 중국 사료시장 공략을 위해 산둥(山東)성 랴오청(聊城)에 신규 사료공장을 건설한다고 9월23일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이 중국에 건설하는 9번째 사료 생산기지이다.

랴오청 공장은 연간 15만톤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11월 착공에 들어가 2012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산둥성은 중국 전체 사료시장에서 2번째로 큰 시장으로, CJ제일제당이 중국시장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다.

CJ제일제당은 9월22일 오전 CJ인재원에서 김철하 대표이사와 유종하 사료사업부문장, 중국 랴오청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J제일제당 사료사업 부문은 현재 인천, 군산, 원주 등 국내 3개 지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 17개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약 2조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국내 대표 사료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사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3>